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頹廢氣風의 橫溢

精神的操作하자

一

近者 京鄕을 勿論하고 一般社會를 風靡하는것은 享樂的氣風과 頹廢的 風潮다。料理店、카페、빠아等이 大繁昌하는 勿論이오 海山景海 이르는곳마다 遊蕩한 氣風과 卑俗한 風潮가 가득하다。夏節은 炎熱로써 室內에 蟄伏을 不許하고 自然히 山野와 水邊에 거듭게되지나 遊蕩과 娛樂과 享樂 間에는 반듯이 一定한 限界가 잇서야 할것이다。이것이 好景氣의 反映이오 勝利의 祝賀라할지라도 오히려 그 限度가 잇겟거늘 하물며 眞正한 景氣도 아니오 祝福할 何等 勝利도 업슴에랴。

二

地價의 騰貴와 鑛山의 賣買가 朝鮮人 經濟界에 一條의 活氣를 注한것은 事實이다。그러나 이러한 景氣가 언제까지나 繼續될줄로 밋는가 設使 어느時期까지 繼續이 된다한들 多少 利得본 收入을 모다 遊興費에 提供하고 닥처올 反動期에 잇서서 어떠케 處身할 成算이 잇는가 大戰中 米價의 高騰은 朝鮮地主들에게 不勞而得의 大利를 주엇다。그러나 그들은 大槪 遊興費에 쓰고 反動期에 드러와서는 全般的으로 倒産의 悲運을 未免하얏다 다시닥처올 反動期에 處할 準備는 다 잇는가。況 收入도 豫算도 업는이가 一般風潮에 끌리어 遊興氣分에 耽溺함에랴。

三

社會는 日益 緊迫을 加한다 東京、新京間의 三十六時間 스피드·업 計畫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十五個年計畫의 八十萬 朝鮮人의 滿洲移民은 어떠한 結果를 맺겟느냐。吉會線의 連結 羅津港의 築港、大規模工業의 朝鮮進出等等은 모다 日本海를 湖海化하라는 遠大한 東洋的計畫이다 이런 諸問題를 떠나서 農村의 疲弊 人民敎育의 不振 都市細民의 不安等等을 생각한다 하더래도 社會的 公共的 寄捨는 못할망정 利己的 享樂的 頹廢的 遊興等은 高尚한 娛樂과 攝生法으로써 막을 良心이 잇서야 할것이다。

弔吳熙源翁

敎育界의恩人

一

敎育界의 恩人吳熙源翁이 長逝하엿다 오늘은 그鄕邸鐵山에서 葬禮를지내는날이다 嗚呼라우리가 이敎育界의 恩人을 마즈막으로 永別함에臨하야 한마듸의悼辭가 업슴이可하랴 翁은 舊韓國末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三十年동안 半生의心血을기울려 私學界를爲하야 꾸준한努力을 하여와섯고 그리해서 또만흔業績을 끼친것은 거의世人의共認하는바로 일즉 故李秋汀、李南岡과 밋安島山의 諸先輩와 함께 京城의 協成學校를 비롯하야 平壤의 大成學校와 定州의 五山學校를 設立한것은 翁의 業績中에 가장顯著한것이다 時勢가 一變한以後에도 翁의 敎育에 對한 熱誠만은갈수록 더욱더 노파가 五山高普와 協成實業을아주完全하게 맨든것이 아니냐 이밧게 幾多의 숨은 苦心努力이잇서지만 그들은 다말로할수 업거니와 어쩨든翁은 우리私學界의 恩人이엇섯다。

二

翁은 今年이 春秋가 六十二라 비록 老齡이나 오히려 그 健康한 氣力은 隆崇한 德望과 아울러 今後에도 일층더 光輝잇는 晩年事業을 期待하든바러니 不幸히 오늘날에 翁의 長逝를 맛하게 되엇다 우리네 微弱한 私學界가 翁가튼 가장 有力한 人物을 喪失하게 된은 크게 哀惜할일이다。 ... 에 代하노라。

軍縮本會議開催코저 英、豫備會商提議

爲先佛伊에提議코折衝開始

日本大使館에도覺書手交

【電通東京電話】華府及倫敦兩條約의 失效에 依한 無條約狀態의 發生을 明年末에 앞두고 英國政府는 軍縮新協定의 圓滿締結을 極力希望하고 過般 먼저 獨逸과의 協定締結에 成功을 거두고 繼續하야 佛伊와 豫備交涉을 行하고잇던바 十五日在倫敦藤井代理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佛伊와의 交涉終了를 기다려 日英佛伊의 五個國의 參加를 求하야 軍縮本會議를 開催하고십다는 意向인것이 判明되엇다 即 英國政府는 佛伊에 對하야 覺書로써 正式으로 豫備會商을 提議하고 同覺書中에 萬若 佛伊와의 交涉에 成功하면 英國政府로서는 十月頃 日英米佛伊의 五個國의 參加를 求하야 軍縮本會議를 開催할 意向이다 라는言을 附言하고잇는데 右覺書의 寫本은 日本大使館에도 手交되엇다 그리고 問題는 佛伊와의 交涉如何에잇는데 同交涉에서 某程度의 諒解가 成立되면 英國側은 具體的方式을 調整하야 正式으로 日米의 意向을 打診해올것으로 豫想되는바 日本의 賛否는 一로 英國의 提示할 具體案의 內容如何에잇다 假令 會議參加를 受諾할으로해도 代表委員派遣의 關係上으로나 事實上 十月開催는 不可能하므로 結局 年末頃이 될모양이다

林陸相閣議서 不辭任을言明

今後事態圓滿收拾이只今의責任

統制强化에一路邁進

【電通東京電話】林陸相은 十五日定例閣議席上에서 自己의進退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今回의事件에 對하여는 나의 責任을 痛感하고잇스나 際辭任하려고는 하지안는다

그리고 右陸上의 言明에 對하야 各閣僚가 모도 陸相은 어데까지 留任하야 皇軍의廓正、部內統制强化에 一路邁進하리라고 期待한다 岡田首相을 爲始하야各閣僚는 今後에도 陸相의 自重을 希望하고 事件善後措處一段落後라도 留任을 懇請할 意嚮을 갓고잇다

林陸相談

【電通東京電話】林陸相은 十五日 閣議散會後記者團에 對하야 如左히말하얏다

去十二日 突然 永田軍務局長이 遭難한것은 陸軍을爲하야 참으로 遺憾이나 나로서는 이에對한責任을 기피痛感하고잇다 그러나 이에 對한 前後의 措處를 그릇하지안코 今後의 部內統制에 極力 善處하는것이 나의 只今 責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때문에 全軍的 大動搖가일어나리라고는 늣기지 안호나 前古未曾有의 大事件이므로 이影響하는바에 對해서는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犯罪의 內容에 對해서도 目下 軍法會議에서 調査中으로 詳細한것은 알수업다 岡田首相에게 對해서는 大體以上程度로 말해두엇는데 善後處置에 對한 具體方針에 對해서는 閣議에서는 具體的으로 말하지안헛다 犯人의 身分、犯罪經過等 지금까지에 안것만 말한데 不過하다

陸相辭職은 單히時期問題

後任엔渡邊大將?

【電通東京電話】林陸相의 留任은 部內外各方面에서 切望하고잇스나 今回의 永田事件은 從來의 不穩事件과 根本的으로 그精神과 實體를 달리하고잇는關係上 林陸相으로서는 善後措置의 一段落을 기다려 挂冠할 堅固한 決心이다 十五日의 首相과의 會見에서도 明確한 辭旬의 表明은 하지안헛스나 이不動의 決意를 示한바 잇섯다 따라서 林陸相의 辭職이 單히 時期問題이것은 이미 明瞭하게되엇다 그리고 드듸어 陸相이 辭表를 提出하는때에는 陸軍三長官會議를 開하고 그 善後策을 講究할것으로 보이는데 後任陸相도 敎育總監渡邊大將을 推하고 敎育總監에 軍事參議官川島大將 或은 阿部大將을 推薦하는것이 第一案、寺內中將을 陸相에 推薦하는것이 第二案이 아닐가 推察된다

伊政府軍備强化次 又復新壯丁徵募

【電通羅馬十四日發】伊太利國民中 一九一二年、一九一三年、一九一四年生의 壯丁으로 從來 徵募에서 免除된 二萬名에 對하야 十四日 徵兵이 發令되엇다 右에 關하야 陸軍에서는 何等의 理由를 發表하지안흐나 右는 今年末까지에 軍備擴充을 强化하려는 計劃의 一部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徵兵 二萬名에 關해서는 東阿에 出征할는지 그與否는 公表되지 안헛다

聯盟委任統治地의 日本權利를論難

팔레스타이의日本品輸入許可를例證

委員會議事錄公表

【電通주네브十四日發】聯盟委任統治委員會의 議事錄은 十四日 公表되엿는데 右議事錄中에는 日本의 聯盟脫退以後의 委任統治地에 잇서서의 日本의 權利如何가 이委任統治委員會에 依하야 비로소 問題가되야 英國代表部와의 사이에 問答이 繼續된點이 注目을 惹起하고 잇다

委任統治委員 英國은 팔레스타인委任統治委任國으로서 何故로 日本側의 同等으로 볼수잇는 日本産의 綿製品 其他商品의 팔레스타인輸入을 許可하고 잇는가

英國代表 一九一一年 締結의 日英通商條約에 依하야 팔레스타인은 日本品에 對하야 特殊行爲를 取할수 업는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聯盟脫退의 結果 日本은 理論的으로 委任統治制에 依하야 他聯盟加盟國에 與한것과 同等의 權利는 喪失하얏다 할것이나 事實上 日英通商條約에 依하야 制約되엿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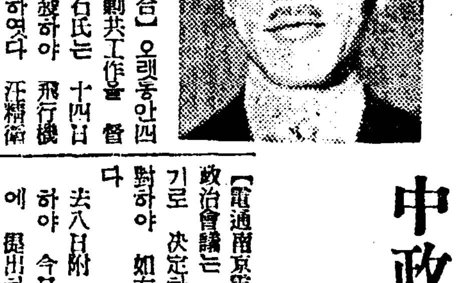
委任統治委員 英國은 日英通商條約이 잇슴에 不拘하고 그植民地 東阿에서 日本品에 對한 輸入配定制를 實施하고 잇슴으로 印度支那에서도 同樣의手段을 取하고잇슴을 想起하면 知悉할것이다

右問答의結果 本委員會는 聯盟理事會에서 거듭하야 何故로聯盟에서 脫退한 國家의商品이 聯盟國의 商品同樣의 待遇를 受할權利를 가지고잇는가하는 理由를 明示할것을要求한것이다

陸軍事件에關해 三相意見交換

【電通東京電話】十五日의 閣議散會後 後藤內相、小原法相、松田文相等이 殘留하야 懇談的으로 陸軍事件에 關하야 여러가지意見을 交換하엿다 要컨대 永田前軍務局長은 怪文書의 犧牲이 되것이라고 보인다 今後 政府로서 끗까지 怪文書의 徹底的 取締를 할것이라는 協議를 하엿다

蔣介石氏成都서 突然盧山에歸還



【上海十五日發聯合】오래동안四川의 前線에서 剿共工作을 督戰하고잇던 蔣介石氏는 十四日 突然 成都를 出發하야 飛行機로 盧山에 歸還하엿다 汪精衛氏의 辭表提出로 惹起된 政府의 危機打開의 重大決意를 가진것으로 보인다

中政會議는辭表撤回決議코 汪氏에게慰留打電

【電通南京電話】十五日의 中央政治會議는 汪精衛氏를 慰留하기로 決定하고 青島의 汪氏에게 對하야 如左한 電報를 發하엿다

去八日附 貴下의 電報에 接하야 今日 中央執行委員會議에 提出하엿던바 全員이 如左한意見에 一致하엿다

『現在 國政이 危殆에 瀕하야 內憂外患이 차레로 닥처오고 잇는데 이에 對한 貴下의 措處는 極히 周到하야 非常한 奇驗을 示顯하는것이 明白하다 貴下의 病은 恢復하야 暫時를 지나면 반듯이 全快될러이오 모든 重責은 貴下의 秀才에 기다릴 뿐이다 그러므로 辭意를 取消하고 速히 靜養後 歸朝하야서 中樞가되어 政權을 統轄하기를 希望한다』

八月十五日 中央執行委員會

(寫眞은 蔣氏)

多田司令官 十七日新京着

【新京十五日發聯合】中國駐屯軍司令官多田少將은 赴任途中 南滿關東軍司令官과 重要協議를 하기爲하야 十七日午前八時五十分 新京着、一泊後 十八日朝 燕號로 赴任할 豫定이다

日中滿三國協力 北中赤化防衛

【東京電話聯合】北中五省各方面의 自主的 更生決意와 關東軍滿鐵을 中心으로한 日滿兩國協力援助에 依하야 中國에잇서서 唯一한 樂土建設工作은 漸次進展되고잇는데 政府는 東亞의安定確保重責을 痛感하고 日滿蘇中四國勢力이 交錯된 北中의安寧의 秩序維持를爲하야 最善의 努力을 다하기로 決意하고 于先北中地帶에 對한 南京政府의 謬見을 是正하야 英米各關係國의 中國에 對한 認識을 是正하기에 萬全의 措置를 講究하고잇다 그리고 最近에잇서서 北中의 脅威는 實로 外蒙으로오는 赤化勢力의 南下와 四川、陝西方面의 共軍東漸인데 近近 何等의 徹底的防遏工作을 施하기 爲하야 日滿中三國은 各其 各關係當局에 對하야 具體的方策의確立을 命하엿다

黃慕松氏도辭表提出

【南京十五日發聯合】蒙藏委員會委員長 黃慕松氏도 軍任에 堪當할수업다고 十四日 行政院에 正式辭表를 提出하엿는데 目下 極力 慰留中이다

永田事件에鑑하야 怪文書嚴重取締

【東京電話聯合】十五日 閣議에서 林陸相으로부터 永田軍務局長遭難原因에 對하야 說明하얏는바 이에 依하면 怪文書를 忘認한것이 이러한 凶行을할 原因이 된것이 明瞭케 되엿스므로 同日閣議에서 怪文書取締에 關하야 協議를 거듭한 結果 怪文書取締에 關하야는 議會에서 자조 問題된바도잇서서 그取締를 하지안흐면 안되겟스므로 關係者인 內務司法省 等에서 硏究하야 來議會에 法律案을 提出할 必要가 잇다는데에 意見一致되바 怪文書發行者에 對하야는 相當한 體刑에 處하는等 嚴重한 取締를할 方針을 決定하얏다

松岡滿鐵總裁 二十三日發赴任

【東京電話聯合】松岡滿鐵總裁는 就任以來 軍部 大藏 拓務等各方面과의 協議에 活動을 繼續하고잇던바 드듸어 來二十三日午前九時 東京發 燕號로 赴任하기로 決定하엿다

時局收拾策協議次 盧山서巨頭會議

南京政界要人陸續盧山에雲集

【上海十五日發聯合】突然 抗嶺의 別墅에 歸還한 蔣介石氏는 即時 軍事行政財政各方面의 巨頭를 招集하고 時局收拾會議를 開키로 決定하엿다 軍事部長何應欽氏及 李烈鈞氏는 現在 盧山에 잇고 浙江省主席 黃紹雄氏는 十四日南京出發、盧山으로 向하얏는데 또 上海鹽業銀行總理 吳鼎昌氏도 同十四日上海出發 飛行機로 盧山에 赴하고 財政部長孔祥熙氏도 함께 盧山에 急行할것으로 보인다 宋子文氏도 情勢에 應하야 盧山에向할터이오 上海에서 待機하고 잇는 駐日大使 蔣作賓氏도 十四日夜 行方을 감추엇는데 이미 盧山에 進出하엿다고도 傳한다 蔣介石氏는 이巨頭들과함께 汪精衛氏의 辭職에 基한 政局打開策과 日中兩國關係 調整의 根本策을 審議할터이다

情勢如何론汪氏도出席

【青島十五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氏는 辭表提出後 嶗山別莊에 避暑하야 悠悠自適의 生活을 繼續하고잇는데 蔣介石氏가 盧山에 歸還하야 時局打開를爲하야 巨頭會議를 招集하기로 決定한 結果 情勢如何로는 青島로부터 汪氏도盧山에 進出하게 될지도 모른다

一事一言

自己凝視 (三)

長白山人

셋재로 우리에게는 古典과 名著의 飜譯出版事業이 업다。文化는 書籍에서 생기는것이다。그런데 우리는 朝鮮語로 된 書籍을 못 가젓다。첫재로 우리先人의 文化遺産은 거의다 漢文으로 되어잇는데 이것은 現代朝鮮語로 번역되지아니하고는 朝鮮民衆의 文化遺産이 될수는 업는것이다。또 支那의 四書五經을 배우는지가 數千年이 되어건마는 現代 朝鮮人과는 그 關係가 이것을 읽을수는 업는 形便이다。古典인 詩解는 今日에 잇서서는 漢文原文보다도 더 難解가 아닌가。또 우리가 西洋文化에 接觸한지가 거의 半世紀나 되어서 只今은 미상불 西洋文化 속에서 산다고 할만하지마는 西洋文化의 淵源이오 本體인 西洋의 古典과 名著로 朝鮮民衆에게 읽혀질 書籍이 稀少하지아니한가。겨우 新約과 舊約을 맛볼뿐이니 이러한 朝鮮의 新文化에 深厚한 基礎를 세우기는 바랄수 업는것이다。

우선 二十萬圓內外의 小資本으로 한 十年 計劃事業으로 東西古典 名著百種만이라도 現代朝鮮語로 譯出한다하면 그効果의 偉大함이 비길데가 업슬것이니 到底히 學校 한개를 樹立하는 價가 아닐것이다。다행히 朝鮮語는 相當히 發達되엇고 번역하는 일을 할 人材도 求하라면 되엇는듯 이 千古不朽의 大事業이 쉽게 實現될것이다 出資하는이에게 잇서서 이에서 더 큰 永遠하고 榮光스러운 紀念事業이 또 잇스랴。

辭令

從三位勳二等 張憲植

從三位勳二等 金潤晶

從四位勳四等 劉鎭淳

中樞院參議被仰付(勅任官待遇) 金相亨

中樞院參議被仰付(奏任官待遇)

朝鮮總督府遞信事務官 岩男省三

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委員被仰付

稅務監督局事務官 村山道雄

任總督府事務官(四等)

命財務局稅務課長

總督府事務官 古庄逸夫

任稅務監督局長(三等)

命光州稅務監督局在勤

道理事官 小田島嘉吉

任稅務監督局事務官(五等)

命平壤稅務監督局經理部長

總督府屬 高橋英夫

任道理事官(七等)

命平安南道在勤

總督府事務官 景山官景

命農林局農政課長

稅務監督局事務官 國分重慶

免光州稅務監督局長事務取扱兼務

稅務監督局事務官 山村正輔

命京城稅務監督局經理部長

夕刊後의市況 十五日

◆朝取 短期 後引◆

	大引	高値	低値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新	—	[illegible]	[illegible]
日魯	—	[illegible]	[illegible]
日石	—	[illegible]	[illegible]
鋼管	—	[illegible]	[illegible]
滿鐵	—	[illegible]	[illegible]

◆橫濱 生糸 後引◆

當限七五六〇〇 先限七〇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七五五〇 先限 五八八〇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活版 石版 洋裝 帳簿 和本 一式 各種印刷 製本

東亞社印刷所

電話本局二五〇一番 振替京城一〇九六番

營業科目

京光式 精米發動機 製粉機 鑛山用機 ゴム ゴローラー 各種ゴムロール 各種ヒメヤ機 引拔シロフト機 各種ベルト 粕型自動タル機 國産S.S.K.F.ペアリング 改良工場設計製作 精米所一式

京城府岡崎町七一 (岡崎町電車停留所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李光賢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二三八一五番 電略(ケ)又八(ケイ)

京城府貫鐵洞八九

優美館

京城仁寺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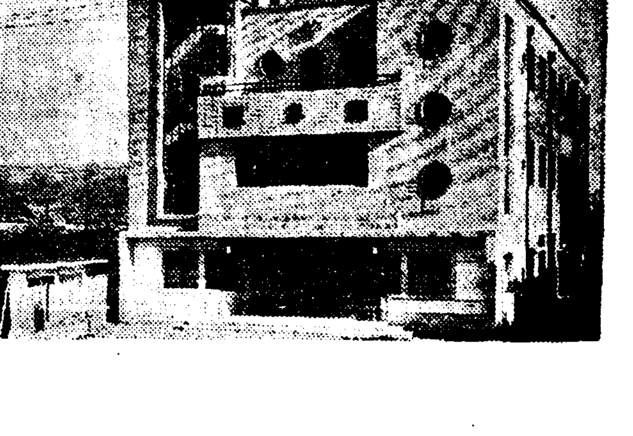
高級映畫封切常設

朝鮮劇場

電話光化門一二八一番

第一劇場近日中落成

全鮮的代表 映畫殿堂



京城授恩洞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大阪株式會社柴田商店滿鮮總代理店

染料顔料 工業藥品 卸商

德世洋行

京城鍾路三丁目

石油 ペイント

露油商會

但十月一日より 本局四七四三

絹布商 株式會社

泰盛商會

京城府桂洞一四八番地

社長 申泰和

京城麻浦桃花洞

高級映畫 常設封切

桃花劇場

怒濤中에"오아씨쓰" 민어膾에濁酒數杯

特派員 成仁基 寫眞班 李鍾玉

海戰從事記 (13)

주문도 동북편약오리 해상에수섬이 빅겨잇스니 이곳이 민어떼가가장만히 모히는곳이다 민어는 거츠른물결을 즐겨 쫏는 고기로서 사리때일사록 그물에 잘 걸키고 낙시에 만히물리는것이다 민어의힌찬반역 행동!힌세인놉은 낙시줄을끈고 달어나는일이 가끔잇다

하로동안에 밤낫두번또는 네번식그물을 느리고 낙시를던짐수잇는터로 한철때에는 이어장일대에 어두운밤이 차저드면물우에 점멸하는 어선의 등시불과 하날우에 반짝이는 별들이 서로 련하야 어떤것이 땅우에잇고 어떤것이 하날우에 잇는것인지 분별키어렵다고한다 캄캄한 칠야마당한바다우에 그물을댕기는 어거드이 소리와 낙시에 걸킨민어를 댕겨올리는 환성이 수평선저쪽을 넘어 머나먼곳으로 사리질때에 저쪽포구언덕에서 술파는계집들이 부르는 권주가 소리는바람에딸아 아득하게드겨온다

×

왜중선에는 열명내지 열다섯명식 낙배에는 네명내지 여섯명식 선원이잇서 물밀때와 물쓸때에는 그물질하기와 낙시질하기에 눈코뜰새가업다 낙배에서는 최소한도 네명은 필요하야 한사람은 낙시줄을 대기고 한사람은 낙시를 채곡채곡 엉크러지지안토록 거두어노흐며 한사람은 노질을하고 또한사람은 낙시에 물린민어를 건저낸다 왜중선에서는 그물들어 올리기와 민어건저내기에 최소한도여덜명가량의 선원을필요한다로 그들은 하로동안여섯시간 내지 일곱시간을정신업시 밤두개입하고 남어지시간은 자는시간외에 그물말리기와 낙시밋기꾀기와 그물짓기와 기타여러가지준비에소비한다

사리때가지나고 조금이 되여민어가 잘 잡히지안는때나 폭풍이 심한때에는 배를 포구에대고 그물에다 감물(渼柿)을 들이여 돗대에 거러노코 어떤우헤 궤딱지가티 말을 천눈 술집분을 두다리여 엽곤히 몃잔먹어 덜박분들을 타서 소처올르는 홍씨들를 위안한다 맛칠흥안을 두고 항파와 싸우며 폭풍과 대항하야 물결소리로만 벗삼다가 오래간만에 뭇(陸)에 올리 낙근민어로 회를치고 한잔술을 나눈은 그들에게 또다시업는 생활전선의「오아시스」가 되는것이다 그리고술집에는 그들을 반가히 마저주는 포구의 녀자가 잇슴에랴!

예전부터 웅고지가 민어철의향락장으로 유명하엿스나 지금은교통이 발달된 연유인지 점점한산하여 진다고한다

민어는 한가지 고기로서 세가지 일홈이 잇다 생선때에는 민어라고 불른은 물론이거니와 등을 째어 소금에 저럿다가 말린것은 암치라하고 배를째어 소금에저린것은 통치라고불른다 생선민어는 생선으로소비되지마는 암치는 또 짜반으로 일반의 수요가만흔것이다 대개는 생선으로 파는것이 그들에게 유리한터로 지금에는잡는 그즉시로 강화본섬 내가면(內可面)외포리에 잇는 강화어업조합위탁판매소(委託販賣所)로가지고가서 경매(競賣)를하거나 또는 발동선으로 인천(仁川)등지에서 민어를 무역하러 어장에 차저오는 생선장사에게 넘기는터인데 그중에는암치의수요를 예상하고 비교적싼생선을사서 등을라서 소금에 절렷다가볏에 말리어 암치를 만드는데 ... 다고한다 암치를 만드는데에는 시일이 걸리고 생선으로 파는것과달라 현금으로 곳밧글수업는만큼 어떤상인의 특별한 위탁이업시는 선원들은 생선으로팔수업는경우이외에는 만들지안는다 먼저어떤상인에게 선돈을쓰고 그의위탁을 바든사람들이 이것을만들고 통치는생선으로도팔수업고 암치만들기도 작은민어를 소곰에저렷다가 구어먹거나 쩌서먹는것이다 암치만들기에는 상당히숙련이 필요한것으로 등을갈른한개식노코 그우헤소곰을끼언저 채곡채곡 싸허노핫다가 적당히저른후 아침해돗기전에 내어널고 저녁해 진뒤에 거두어야하는터로 해빗이 환짝나서 더운때에내어널거나 더운때에 거두어들리면 더운김에 연한 민어살이상하야 못쓰게되거나 때깔이조리못하게되야 작지안흔손해를밧는것이다

×

왜중선과 낙배가 강화도부근어장에서 낙거내는민어의 총가격은 일년에 칠만륙천여원에 달하야 새우다음의 제이위를 차지한다 이곳에서 잡는민어는경성과 인천시민의 밥상에 올르는터로 인천으로는 배로가저가거니와 경성으로는 외포리에서 새벽두시에 화물자동차로실허다가 경성어시장에 공급한다 새벽두시 외포리에는 그물과낙시로 잡은민어를 뱃장을 송송 뚤코물울통하게 만든곳에산채로 너허두엇든 펄펄뛰는민어의 경매가벌어진다 달발근밤 서해 바다에서 꽉꽉소리를질르며 물결을 딸아노니든 민어는불과칠팔구시간만에 서울사람의밥상에올러구미를동하게하는것이다

사진설명=한머리 두머리 낙시로부터……

領事、將校等廿名 襲擊되여 消息不明

—灤河下流에서中國側自衛團에게—

第二次中村事件?

【電通承德十五日發】승덕헌병대본부의 입전에 의하면 중곤(中根) 령사전엽(千葉)대위태재(太宰) 일본거류민회장등 약이십명은란하(灤河)를 나려오든 길에 십사일 오후일곱시경에 산하교(撒河橋)하류 이킬로의 지점에서중국자위단의 습격을 바더다는데 그뒤의 소식은 도모지알수업서젓다고한다

後藤討伐隊 戰死廿三名

蘿北縣下土兵에게

【電通哈爾賓十五日發】십일일오후네시경에 삼강성라북현(三江縣蘿北縣)에서 후등(後藤)부대는 토병토벌차로 출동중에 유력한 토병일백사십명을 맛나서 격전끄테 퇴각시켯스나 그전투에서 후등부대의 전사자는 이십일명에달하는것이 판명되엿다 또여시 토병토벌차로 삼도천(三道川)방면에 출동하엿든횡정(橫井)부대에서도 수명의 사상자를 내엇다고한다

鼻疽病又復發生

동대문 가축시장에비저병(鼻疽病)이 발생되어래 동대문경찰서위생계에서는 도위생과와 협력하야 관내가축시장의 일체검사를실행중인데십오일아츰 왕십리(往十里)에서도 비저병에걸린말한필을 발견하엿슴으로 곳응급주사를 하엿다는데 이비저병은 사람에게도전염하는것으로 전염후 오륙년간은 체내에잠복하엿다가 증후가 나타나는만큼 곳 전염여부도알수업는것이라하며 이병에걸리면 딸다리가 몹시쑤시고 필경에는 위장에 무스덩어리가생기여죽게되다고한다

京城消防署를 市內中央에 新築

總經費八萬圓折衝中

점점 팽창의 한길을 더듬고잇는 명일의 대경성은 이익고명실함께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하게될터인데 이미래의 경성의 면목에 상부하지안는여러가지『전래의유물』의하나에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의청사가잇다 일즉부터도 금후 경성의방화권선의 정비강화를 위하야는 위선 그총본영인 소방서의 이전및 신축이 필요하다는견해를 가진 경기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문제가 숙제가 되여 왓스나 재정관계로 그실현을 천연하고잇드니 금년에는 작금 신년도 예산편성기를 잡차 경성이 시가지계획령하에 금히 그면모를 고칠달도 절박하엿스므로 단연 이숙제를 실현하자는 방침이서서 십오일부터 경기도는 총독부에 향하야 신축에 요할 예산에관한 절충을 시작하엿다

현재 남대문의 경성소방서는 그건물이 수십년이되는 낡은목조인데다가 위치가 한편에 편재하야 물론이 막심한데 도에서는 동경(東京)、대판(大阪)등지의 소방대의 건물을 참작하야 최소한도로 약팔만원 가량의 예산을 재무국(財務局)에요청하엿스니 재무국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이에 응할수가업다는 리유아래서 그 대안으로 예산을 륙만원으로주려가지고 밥부는 총독부에서반부는도에서 부담하자는안을 제시하엿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고려한결과 그절충안으로서 예산은 의연히 팔만원으로하되 그부담은 총독부로부터 밥부만은 지출해달라고요청하야 방금절충중인데 여하간 신년도중에는 실현될것만은 의심업는일로서 경기도에서는 경성의중심지대에 그기지도 물색하는중이다

京都南座燒失

【電通京都電話】십오일 오전열시삼십분에 경도시 사조통(四條通)에잇는 극장 남좌(南座)에서 불이 이러나 외곽만남기고 내부를전소햇는데 동일한시반에 진화는되엇고원인과손해는조사중이다

江景朴富豪拘禁

愛妾에게被訴하야

【江景】강경의 굴지하는 부호로서 금전에서 청미소를 대규모로 경영하며 론산、강경등지의 모모회사중역인 박모(朴某)(六)는 지난오월 그의 애첩김귀순(金貴順)(二〇)에게 유인상해회기등 죄명으로 피소되지 이개월만인 십삼일에 돌연 강경서에 류치케되야 강경실업계는 물론 일반사회에 일대센세이슌을 일으켯다한다

手術臺에누은人妻 醫師가凌辱햇다提訴

問題醫師는方今留置取調

慶南晋州에奇怪한事件

【晋州】진주읍행정(晋州邑幸町)이백번지 강철수(姜澈洙)는 시내금정(錦町) 모의원(某醫院)원장 의학사 모(某)(三)를 걸어 자긔처 김영자(金榮子)(二一)=以上全部假名=를 강간하엿다하야 지난팔일 진주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를 제긔하야 의사、모는 동십일에 경찰서에 류치되어 방금 상호(三好)사법주임의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인바 그는 절대로 사실전부를 부인하므로 아즉 그진의를 알수업서 일반의 추측이 구구하나 소장에 나타난 사실에는 륙월그음부터 전기영자가 자궁병(子宮病)으로 치료와 수술을 바더왓는바 칠월초사일 오후일곱시경에 전과가티 수술대에 누어서 자궁치료를 밧는중 치료가 끗난다음 불의에 겁간을 하므로 수술대에 누은몸이라 자유로 몸을 요동할수업서 고함을 한번질럿스나 드디어 폭행을 당하엿다는것이다

그러고 녀자편의 말을들으면 그런일이 잇슨후 수십일을 정신적 고통을바드면서 생각하다가 얼마전에 이비밀을 경성(京城) 모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친정부친인 현모(玄某)원참의(中樞院參議)인 모씨에게 편지로써 사실전부를 고백하엿슴으로 그 남편과 부친되는 모씨는 곳 진주로와서 양편이 서로 명예를 존중하는니만큼 의사를 조용이 불러다가 문책하엿스나 그가끗내 사실을 부인함으로 부득이 고소를 제긔한것이라 하며 또 의사편의 말을 들으면 치료할때마다 반다시 간호부가 립회하엿슬뿐아니라 강간을 당하엿다는 칠월 사일 이후에도 삼사차 병원에오엿이잇고 그후녀자집에 왕진한적도 잇다 하며 전연사실을 부인하므로 일반은 금번사건의 진전을 매우 흥미잇게보고잇다

거리의病客救濟策

總督府社會課서立案

총독부사회과에서는 몽롱의탁할곳이업는자 또는걸인등 소위행려병환자(行旅病患者)에 대하야는 대정륙년과 팔년에 이것의 취급에관한부령(府令)이잇서 각지방청과 경찰서에서 취급하야 오게하얏는데 대개는 행려병자가 사망한후에 사체를 가매장함뿐으로환자를 수용하야 치료식히며 직업을 구하여 주는등의 따뜻한인도적 구호를 하지못하는 상태임으로 이번에는 려행병환자와 사망자의 취급에 관하야 여러가지 새로운 구호적 규정을 제정하야 이것을 단일법령으로 제령(制令)으로 공포실시하고저 방금 초안을 작성중이라한다 현재 조선내의 행려병자는 매년 삼천오、륙백명의 다수에 달하야 그처치와 구호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어잇슴으로 금후는 전긔의 법령을 제정하야 그것을 표준으로 인도적구호방법을 강구하게되엿다한다

酒酊뱅이告發로 百餘警官헛受苦

【淸州】지난십삼일에 충북청주에서는 소주멧잔으로 인하여청주서관하 백여경관을 총동원하게한사실이 잇섯다 그내용을든 외면구내 죽암금광(竹岩金鑛)의 화약주임 제평길(堤平吉)이가청주읍에 들어와『따이나마이트』와 화약(火藥)、화승(火繩)등을 사가지고 가는길에 소주멧잔을 사먹고 취하야술을 못이겨 여남석교경헤잇는 과자가가에맛기고 자다가 잠을깨여가지고는 황당히맛긴것을잇고 청주서에 분실계를 계출하얏는데 동서에서는 대경실색하야 관하에 비상소집을 하는등 대활동을 개시하얏섯는데 약한시간후에 맛겨두엇든것이 판명되여 동원되엿든경관은 뒤통수만첫다고한다

處女誘引한老婆

시골처녀를 서울부자집에다 시집보내준다고 속이고 음식점작부로 팔어먹으려든 악마가튼로파가잇다 시흥군 북면영등포리(始興郡北面永登浦里)한백순(韓白順)(六〇)은 지난 륙월이십일 전북금산군해원면천내리(全北錦山郡海原面川內里) 손명수(孫明洙)의큰딸 덕례(德禮)(一七)를 경성에사는 모도자집에 시집보내준다고 감언리설로 꾀어데려다가 자긔의조카딸이라고 속히고 부외아현리(阿峴里) 김영식(金永植)음식점에작부로 칠개년간긔한으로 전차금일백이십원에 파려먹으든것이 한로되야 십오일 종로경찰서에 인치되야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一月以後市內染病 一千四百名發生

놀라운黴菌의亂舞

경성부내의 전염병은 칠월중순경부터 창궐하야 총독부위생과의 조사에의하면 금년중의 그 발생환자수는 십사일까지(赤痢)이백십구명 장질부사(腸窒扶斯)륙백칠명 성홍열(猩紅熱)이 이백오십사명 노막염(腦膜炎)이구십구명『디프테리아』이백열한명『파라티브쓰』이십사명 두창(痘瘡)네명 루계일천사백륙십륙명의 다수에 달하야 그형세는 의연히 잡식하는 기미 가보이지아니하므로 방금 관계 위생당국에서 독려하야 방역에 노력하고잇슬뿐이라고 한다

外裝은京仁行商 실상은竊盜行脚

지난 십일시내한강통(漢江通)륙군관사 모창고집에 괴한이침입하야 시게등귀중품다수를 절취도주한외에 최근빈빈히 륙군관사에 도난사건이 일어남으로룡산(龍山)헌병대에서는 그간 범인을 엄탐중이든바 십오일에드디여 전남해남군(海南郡)출생의 황령전과일범 두부행상인 강화금(姜化金)(二七)을 체포하고취조한결과 전긔 절도범행을 자백하엿는데 절취한 금품은 유흥에 소비하야버렷다한다

臨津江邊의異變

船綱에高壓線다어 即死重傷各一名

【汶山支局電話】십오일 오전열시경에 파주군 림진면 사목리(坡州郡臨津面沙鶩里) 나루에서 마칩 강화도(江華島)로부터 새우젓을 실코온 배에 장치한 쇠줄이 강안의 고압선(高壓線)에 부대처서 배우에잇든 강화군삼산면서검리(江華郡三山面西檢里) 고태일(高太一)(三)은 감전되여 현장에서 즉사하고 함께타든다른한명도 감전되여인사불성이된것으로 부근춘생의원(春生醫院)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은지질모양이다

獅子庵強盜의 嫌疑者를取調

안양사자암(安養獅子庵)에침입하엿든 강도범인을 체포코저 소관영등포서에서는 사건발생 이래 린근각경찰서와 련락하야꾸준히 수사에전노력을 다하고잇는데 범인은경성방면에 잠입한흔적이 잇슴인지 십오일아침에는 영등포서형사두명이 종로경찰서에와서 밀의를거듭한후 동서에 절도혐의자로 인치한모불량을 엄중히 취조중인데 이범인이 전긔사자암강도의 유력한 혐의자인모양으로 취조에딸아서는 미궁에 들어가려든 이강도 사건도 손쉬웁게 해결될 모양이다

電話自動交換 活動寫眞公開

경성중앙 전화국에는는 자동식전화의 개시도박도하여잇는만큼 일반민중에게 그자동식전화를선전인식식히 기위하야 노력하고잇는중인데 오는 십륙일부터륙일간 다음과가튼일할로 자동식전화취급법의 활동사진회를개최한다는데 매일오후 여덟시부터 시작한다고한다

八月十六日 日出小學校校庭
同 十七日 南大門小學校校庭
同 十八日 櫻井小學校校庭
同 十九日 三坂小學校校庭
同 二十日 南山小學校校庭
同 廿一日 東大門小學校校庭

煙火大會하다가 觀覽者多數負傷

【横手電通話聯】추전현 횡수정(秋田縣橫手町)강변에서 십사일밤에 연화대회가 잇섯는데 밤여덟시반경에 미발의연화재료에 실수로 인화되여 일대음향과함께 폭발하야 부근에잇든 관람자중 열한명의 부상자를내엿는데 그중두명은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運動競技欄

明春獨逸에出征할 올림픽氷上代表

京義沿線各地에서 "氷上映畵와講演의밤開催"

이미 半島스포-츠界에 燦然한光輝를發하고잇는 우리 氷上의三傑 在東京팩컨俱樂部員 金正淵、李聖德、張祐植三君은 年復年前人的 記錄을作成하야 斷然他의追從을不許하야 全東洋의 레코-드를 獨占하고잇음은 勿論 世界的水準에로 躍進하고잇는바 滿天下스포-츠팬의 다가치기대하는바이지만 이들三君은 이욱고明春二月初旬獨逸「카르미쉬·바르텐킬헨」에서열리는 第四回世界冬季올림픽大會에 朝鮮을代表하야 世界舞臺에進軍코저 待機中에잇다。팩컨俱樂部의 以上三君과 部員一同은 이번夏休를利用하야 海內팬들을위하야日光서열리엇든 全日本氷上大會活寫外數種과밋 氷上競技에對한 講演의밤을 京義線沿道 新義州、宣川、平壤、沙里院(또는海州)開城京城(九月十二日頃)等地에서열어 올림픽出戰에對한 若干의補助金이라도마들고저 計畫中에잇다。一行은 九月二日頃 新義州를爲始하야 沿線各地를 歷訪할터이라는데 이들을招請할地方은 白狗滑氷俱樂部(京城武橋町三五)나또는 本社運動部로 照會하기를바라며 팬인俱樂部員들을爲하야海內人士들의 熱烈한 後援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朝鮮代表選定

朝滿陸上豫選會를 마치고 詮衡會로 들어가 朝鮮代表를 嚴密히選定한바 다음과가튼十八名의代表選手를 選出하엿슴으로 今十六日午後四時부터 新龍山鐵道運動場에서 必勝을期하고 合同猛練習을거듭할터이라한다

▲監督 喜田勘▲코-취 丹生正▲主將 劉約翰
▲百米 韓晶錫 金萬式 金仁植
▲二百米 岩崎 韓晶錫 金萬式
▲四百米 金仁植 李常榮 金萬式
▲八百米 柳長春 李常榮
▲千五百米 池永龍 文允善
▲五千米 池永龍 柳長春
▲高障碍 金煥民 安達 山本
▲中障碍 李常榮 金煥民
▲投圓盤 劉約翰、荻野
▲投砲丸 松崎、荻野
▲投 槍 喜田、劉約翰
▲走高跳 山本、上原
▲走幅跳 裵俊煥、韓晶錫
▲三段跳 裵俊煥、荻野
▲棒高跳 喜田、岩本
▲投鐵槌 劉約翰、松崎

國際學生軍歸途 全滿洲軍과對戰

【奉天十五日發聯合】第六回 學生國際競技大會에 參加했든 日本學生陸上競技選手一行은 九月中旬 西伯利亞經由로 歸國途中 滿洲體育聯盟主催로 奉天國際運動場에서 全滿洲軍과 對抗競技大會를 擧行하기로 되엇다한다

朝滿陸上對抗 朝鮮豫選 池永龍力走

第五回 朝滿對抗競技를 앞한朝鮮、中國、滿洲의 交歡陸上競技大會는 來廿五日에 大連公設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該大會에出場選手를 決定할 朝鮮代表豫選會는 十五日 午後一時四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이날의白熱戰을 演出한 五千米競走는 平南新進選手 池永龍、文允善兩君이 十六分二十七秒의 快記錄으로서 朝鮮長距離界의 猛將인 柳長春君을 無難히 제치고 斷然히 一、二着順으로 決勝線에 드러오니 柳君三着으로 뒤떠러젓다。이날의夕刊마감以後의 競技戰績을 記錄하면 다음과가타

【高障碍】1金煥民(殖銀)一六秒二 2安達(遞信)一七秒三 3山本(鐵道)
【二百米】1岩崎(鐵道)二三秒三 2金萬式(平南)二三秒九
【投圓盤】1劉約翰(鐵道)三九米四〇 2荻野(遞信)三三米八五
【走高跳】1山本(鐵道)一米七〇 久原(鐵道) 一米七〇 3上原(鐵道)一米六五
【千五百米】1池永龍(平南)四分二秒二 2李正根(鐵道)四分二三秒三 3文允善(平南)四分二四秒五
【中障碍】1李常榮(平南)五八秒六 2金煥民(殖銀)五九秒八 3安達(遞信)六二秒七
【投鐵槌】1松崎(高商)三五米四〇 2劉約翰(鐵道)三五米 3安榮植(醫專)三三米二九
【棒高跳】1、喜田(鐵道)三米八
【五千米】1池永龍(平南)一六分二七秒 2文允善(平南)一六分二十八秒六 3柳長春(遞信)
【投槍】1喜田(鐵道)四八米八〇
【三段跳】1裵俊煥(平南)一三米四五 3久原(鐵道)一二米四六 2荻野(遞信)一三米一〇
【走幅跳】1裵俊煥(平南)六米四九 1黑原(城大) 六米四九 3韓晶錫(遞信)六米三七 3久原(鐵道)六米三七

甲子園中等野球

吳港3A 2飯田

【甲子園電話】中等野球第二日=第三次飯田商業 對吳港中學(昨年優勝校)戰은 十五日午後二時半부터甲子園球場에서飯田商業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三對二로 吳港中學勝

飯田	0	0	0	0	0	0	0	0	2	2
吳港	0	1	0	0	1	0	1	0	A	3A

第二回戰對陣

【電通甲子園電話】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第四日、第三試合以下의第二回戰對陣은 十五日에抽籤한結果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第四日
▲吳港中學對日新商業(二時半)
◇第五日
▲千葉中學對大分商業(九時)
▲甲府中學對育英商業(正午)

서울保健講習光景 (昨朝刊運動欄參照)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에서최고치료약으로서 사용하며, 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 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붙

이잇는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 何等의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 濟의公認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 저적전지역으로 주장되게되엿스며「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 절대적신용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는 효과업는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병에대고 복용하야 보아도 업는환자는 한번써보시요

藥의有效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혹되야서는안된다 ... 실것가튼것이나 모지가튼것이 떠다니는것이 특징이다 즉 그것이 림사(淋絲)다 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하지라도 컵에오줌을 바더 변을 보와 림사(淋絲)가 떠러지지안으면 ... 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으면 안된다 약이 ...

梅毒

本社創製의梅毒藥은政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 皇漢梅毒藥數種을主藥하야副作用이絕對업는 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기의감창、가래톳의치료는물론、제이기전신매독、잠복매독 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보제의내복으로、곳배독작용(排毒作用)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전신증상이 점점 저서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 룩、하로라도빨리본사의구매제(驅梅劑)를복용하야고치시라。

림질 변제(림질약)팔원 약두제(림질약)사원
매독 변제(시험약)팔원 약두제(시험약)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책임제약임으로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 龍山旅兵町 有田도락구 /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 麗水港 有田도락구 / 淸津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桜町 有田도락구 /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 四平街舍盤路 有田도락구 /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 哈爾賓傅家甸 有田도락구 / 大連浪速町 有田도락구

朝鮮總販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또다시 口中殺菌劑 カオール 가오ー루 의 大壯擧!!

口衛生錠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全道藥店々頭에서 暑中사ー비스로서 가오ー루 カオール의 接待를 하옵나이다

但右記의포스타ー가걸여잇는藥店에限함니다

더위가심한요새에本劑의服用은 絶対로必要함니다

卽炎天에疲勞된精神을爽快케하고 夏節에무서운傳染力잇는病菌을口中에서殺菌하고 衰弱키쉬운胃腸을健全히하며 또한 豊富한淸凉劑는萬斛의淸凉味일것입니다。故로 外出하실時。사람모힌곳에게실時。飮食을잡수신後에는 반듯이本劑의二、三粒을 口中에너어두시사病菌의侵入을防止하시도록 注意하여주시기바람니다。

配劑와其効用

製劑顧問 딱터 松尾 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空氣 또는飮食物과함께 입(口腔)으로부터드러오는모ー든病原(病原菌)을口中에서 殺菌하게됨으로 모ー든傳染病을豫防합니다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위(胃)를健全히하고 또消化力을亢進식혀서 食慾을增進케하고 설사(下痢)腸가다루等에는 整腸劑는 殺菌劑와 서로 協力하야 이것을治療합니다

三、興奮劑와强壯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心身의疲勞沈衰時에는 各機能을興奮케하야 氣力을回復旺盛케하며 健胃劑와함께肉體를强壯케만듬니다

四、淸凉劑와美香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그독특한芳香으로 입안(口中)의 냄새(惡臭)와 惡熱을 除去하고鎭痰劑는 咽喉의 乾燥를潤澤케하야 音聲을美化하며 따라서 精神을爽快케합니다

그러므로여러분의保健을위하야

◇전염병이류행될때 ◇음식을잡수신후
◇남의게대하실때 ◇기차전차에타실때
◇사무와공부하실때 ◇원족운동을하실때
◇입에서냄새나실때 ◇술담배를자실때
◇禁煙코자하실때 ◇音聲을쓰실때
◇기분이조치못하실때 ◇피곤하실때

가오ー루두세개(二三粒)를口中에너시시요 本劑를口中에너심으로서 마스크 양주김(含嗽)의 必要가 업슬뿐만안이라 心身을 상쾌(爽快)케하며 위장(胃腸)을 健全히하는効果가잇슴니다

●오늘부터 곳 カオール의常用을권합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光琳金石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二圓)	二千二百粒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丁目

一府十二郡赤地化
罹災農民이 六萬餘戶 被害額 一千萬圓突破
穀庫全南의 旱害慘狀

【光州】중부와북부조선에서 홍수피해의소식을 날마다 휘날리고잇는한편 그와정반대의 현상은 대자연의 작란인지 좁은반도연내를 고루하지못하야 남쪽 전남에서는 본보에 루보한바와 가티 한재의비애성이 자못하날에사못첫다!

전남지방도 이것을 여분으로 나누어 보성(寶城)려수(麗水)순천(順天)해남(海南)강진(康津)광양(光陽)고흥(高興)장흥(長興)등 동남부일대는 이상할정도수를 예상하는 희유의 대풍작을 말하게되고 함평(咸平)무안(務安)라주(羅州)를 필두로 목포(木浦)령암(靈岩)광주(光州)담양(潭陽)장성(長城)화순(和順)곡성(谷城)구례(求禮)령광(靈光)등 서북부일대 일부십이군(一府十二郡)에 궁한 광막한 지역은 문자그대로 적지천리(赤地千里)의 참경을 낫하내고잇다그리하야 심각한 재해의 참상은 날이갈수록따라 확인되여가고 그결과는 저옥히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되다고한다 아직피해의 정도를 수자를 빌려보도하기에 밋치지못하나 도당국의말한바에 의하면 금번한재의 피해는 일천만원을 훨신초월하리라하고 이재농가호수는 륙만호에 달하야 도정(道政)이후 초유의 대사실이라고까지한다

그리하야 인심은 극도로피폐하고 라망되며 그러치안어도 피폐한농촌의참경은 가속도적으로 대량적파산을 재쪽하야 그들이재민은 벌서부터 남부녀대하고 동서류리의길을떠나며 관개의허수고로 최후의농량까지를소비하여 바리고 초목의닙사귀와 해초등으로 연명하는등 그정경은 실로 참절비절의극에빠지게되엿다고한다

그리고 일방이재지의 주민들은 구조의일로를 엇기위하야 그들가지지청원들은 점종 상도하야 도당국에 탄원을하고 잇다는데 그러치안어도 이참경을목도하고잇는 도당국에서도 그구제책에 대하야 부심치안은배안이나 결국적극적방면의 구제책에 대하야는 방대한사업이 필요할것임으로 국력이안이고서는 미소한 지방재정으로는 엇지하는수업고 다만 면세(免稅)、이재지 농촌채무급 비료대금등의 지불거치、(支拂据置)、소작료면제 혹은감하등 소극적방면의 구제책에대하야 적극적으로 압서실행토록 계획중이라고한다

救濟의 一縷希望은 國庫補助를바랄뿐
近藤知事使命을띄고上京
그의成否를注目視

【光州】전고미문의 전남지방한재참상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재지의 농민들은 실로최후의 궁경에 달하야 잇슬뿐더러 그수에 잇서서도 륙만호 삼십여만명에 달하야 문제는저옥히 중대한터임으로 도당국에서도 파반이동(伊東)농무과장이 상경하야 총독부당국에 그실정을보고하고 또 총독부로서도기사를 파견하야 그실지를답사케 한바잇서서 총독부당국 에서도 금번 전남지방한재의 중대성에 대하야 확인하고 잇스리라고미더지는터이나 그구제책에 대하야 국고응급보조를 엉코저 십오일석차로 근등(近藤)전남지사는 중대사명을띄고 상경하기로 된바 수십만리재민들은 일루의 희망을 여기에 붓치고잇슴으로 근등지사의 금번상경은 실로주목된다고한다

近藤全南知事談

금년보도 한재의 중대성에대하야는 말치안어도세인이이미 바어니와 그질(質)이깁고 량(量)이큼에 잇서서는 놀나지 안흘수업슴니다 그리하야 수십만리재민의 구제능력은 국력이 안이면 지방의 힘으로는 도저히 밋치지 못할바임으로 이것을 총독부당국과 타협키 위하여상경의길을 밟게됩니다 세인의 인식은 흔히 수재가튼것에난 동원되고 잇스나 기실 금번한재의 실정은 수재에 비할바이 안입니다 운운

無產兒童教育機關
蓮湖學院復活運動
期成會까지組織活動

【新浦】함남 신포면 연호리(新浦面蓮湖里)에는 과거 칠팔년간 무산아동 교육을 위하야 막대한 노력과 공헌이잇든 련호학원(蓮湖學院)은 불행히 경비부족으로 폐문한지가 벌서 사년이 되는바 그간 배움터를 일코 가두에 방황하는 무산아동의 비참한 정경을본 동지 유지들은 일제히 분긔하야 동학원을 부활시키고저 지난 팔월일일 긔성회를 조직하고 위선 긔본금 일천이백원을 만들고저 방금 맹렬한 활동을 계속하는중이라 하며 이미 모집된 의연금도 잇는데 모조리 피땀을 흘려가며 푼전을 모은 눈물겨운 긔부라고하며 동리민의 열성에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동긔성회원과 의연자는 아래와 갓다

▲姜昌模、金鳳洙、姜宗永、姜基模、姜鳳勳外四人 ▲蓮湖人夫請所 蓮湖牛車組合 蓮湖中腰村座內 各有圍式

◇本報惠山支局主催의 市民慰安音樂會의 一場面

地方運動競技

陰城蹴球大會 來十八日開催

【陰城】음성축구단에서는 래팔월십팔일에 본사음성지국후원하에 제삼회중선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바 각지방선수의 다수참가를 바라다하며 주최단의 선수들은 매일고열을 무릅쓰고 맹련습을하여 당일대회의 장관을 크게 기대한다고한다

泗川支局後援 南朝鮮庭球盛況

【泗川】사천청구 구락부주최와 본보 사천지국 후원의 제삼회 남조선 개인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팔월십일일 오전칠시부터 사천 공보교정에서 수백여명관중환호리에 회장황순주(黃順柱)씨개회사로 개막되엿다。이날은 특히 일기가 량호하엿고 원래 한동영(統營)진주(晋州) 등각처에서 운집한선수들의 참가로근래희유의 대성황을 일우어 준결승전을마치고 결승전에 들어가 영예의우승은 진주고보생조(晋州高普生組)로 돌아갓는데 입상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優勝 (晋州)朴一來、成基洪
二等 (晋州)姜千帥、朴熾來
三等 (統營)徐舜龍、李斗榮
三等 (泗川)周麟洪、鄭鏞汶

全朝鮮脚戲會 永同에서開催

【永同】영동시민 유지주최 동아、중앙、조선삼지국 후원하에 영동교하에서 전조선 각희대회를 오는십칠일부터 삼일간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푸부한상품과 각지에서 운집하는 선수가 만흥리라하야 대성황을 예긔하고잇다고한다

全文川蹴球戰 秀峙軍이優勝

【川內里】문천청년회생간친회 주최와 본보 천내분국후원의 제사회 전문천축구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십일일 오전십시부터 당지 심상소학교운동장에서 딸게 단체의 참가로 무려천여명관중 집합리에 개막되엿든바 최후결승에들어가 수치보교동창군(秀峙普校同窓軍)이 릉전군(陵前軍)을 이대일로 격파하고 영예의우승권을 획득하엿다한다

咸興脚戲大會 十七、八兩日間

【咸興】전선각희계에 긔대의화형선수를 산출한씨름의 나라함흥에서는 근래수개년간 장소등 관계로 각희개최를 하지못하고잇든바 금번에이르러서 다시금 과거의성황을회복코저 여러가지로 의론중이던바 드듸여함흥각희회주최와 본보지국의 후원으로 오는십칠、팔량일간함흥군영리(軍營里)무덕전광장에서전조선각희대회를 개최하기로결정되엿는데 미리부터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南鮮蹴球大會授賞式光景

南鮮蹴球大會 熊川軍이優勝

【扶餘】홍산체육회주최와 본보지국후원의 남선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십이량일간 개최한바 참가단체가 합아홉팀으로 대성황리에 폐막한바 전적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1、不戰勝 鴻山A
2、○大川一—×忠化○
3、×扶餘一—○熊川六
4、×鴻山B○—○靑陽六
5、×韓山一—○江景二
◇第二回戰
1、○熊川三—×大川一
2、○靑陽三—×鴻山A一
江景軍棄權
◇第三回決勝戰
○熊川二—×靑陽一
後半戰부터靑陽軍棄權

旅館에任置한돈 六百餘圓을盜難
安州邑內文峰里에서

【安州】안주군 안주읍 문봉리(安州郡安州邑文峰里一〇九)한태일(韓泰日)의 려인숙에는 지난 십일일 우시장(牛市場)에서 소를 매매하려고 왓든객 열네사람중 엿사람이 돈륙백원을 주인에게 맛기고온후 열한시부터 자기시작하야 밤을지난후 잇튼날 아츰에 의롱에너헛든 돈뭉치가 전부 업서젓슴으로 곳안주서에 고발하야 그의가족들과 객들을 엄밀히 취조중이나 아직범인은 오리무중이라는바 그집내정을 잘아는 사람의 범행인것만은 사실인듯하다고 한다

强盜二名出現
婦女襲擊奪金

【江景】지난 십삼일 오후열시경에 논산에서 강경으로 오는 신작로변에 돌연 강도두명이 낫하나 대전으로부터 논산까지자동차를타고 내려와서 채운면 하리김신철(彩雲面下里金信哲)(三〇)이라는 사람을 차저가든 금산읍(錦山邑) 리신애(李信愛)(三)(假名)라는 녀자를붓잡고 네게는돈을 만히 진이고잇다 내여노코 가거라협박한후 리신애의 주머니를털어서 일금십오원을강탈하여가지고 우리가 잡간 차용한다하고 그만 종적을 감추엇다한다

慶南警察部活動 靑年二名을檢擧
昌原郡下頭洞里를中心으로
檢擧는去益擴大形勢

【鎭海】지난 십삼일에 경남도 경찰부(慶南道警察部)진형사부장(陳刑事部長)이 진해에 출장하야 진해서(鎭海署)고등계의 응원을 어더 웅동면두동리(熊東面頭洞里)에서 동리 배종인(裵鍾仁)의 가택을 수색하는 동시에 전긔 배씨를 검거하엿다하며 동일 오후에는 진해읍경화동(鎭海邑慶和洞)에서 전긔 배씨의아우요 현재 양화점(洋靴店)을경영하고 잇는 배종의(裵鍾義)를검거하엿다는데 사건내용에 대하야는 절대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업스며 아직도 진형사부장이 진해를 떠나지안코 모모청년의 행방을 탐색하는중이라하야 검거는 더욱확대될듯 하다고한다

龜城少年軍이 窟岩寺를探勝

【龜城】조선소년군 제십호대구성보부 대원일동은 십이일부터 십삼일까지 량일간 구성의 절종지 굴암사(窟岩寺)를 탐방하여 캠푸를 하엿다는데 봉황대(鳳凰臺)에도 올라가 모험식탐승을 하엿스며 더욱 새로 유명한 폭포를하나 발견하엿다는데 주락포(珠落瀑)라고 명명하엿다 한다

被害者遺族爲해 「벙어리」를寄托
童心에핀純情美談

【咸興】이번 함흥의 미증유한 철도사고가 발생되자 피해 유족들의 목불인견의 참상에 동정하여 업는 가운데서라도 주머니를 털어 동정금을 보내는 감격한 미담이 속출하는바 십사일 오후령시십분경 함흥부 대화정삼정목(大和町三丁目)대화목재(大和木材)상회주인 김성식(金晟植)씨의아들 옥마(玉馬)(十)군은 본보함흥지국에 차저와서 사탕사먹다가 남긴푼푼을 너어둔 벙어리를 이번사변 피해유족들에게 전하여달나고 부탁하엿는데 어린마음에도 피해자유족들의 참상에 동정을 이기지못하여 그와가치벙어리까지들고온 김소년의 순정은 긔특하다고한다

林女史表彰

【馬山】마산부 신월동(新月洞)림월이(林月伊)(四三)부인은 병든남편을 위하야 이십여년동안을 하로가티 간호에진력하엿슬뿐 안이라 빈곤한생게를 해상하여 근소한 수입으로 이여나감을본 동리사람들은 그의 독행에 감복하야 지난십일일에 정총대의 주재로 동민다수가 참석하야 표창식을 거행하고 표창례물과 표창장(賞狀)을 수여하엿다한다

躍進途上의仁川府
府區域擴張計畫
後補地는文鶴面과長意里一部
來十月一日決定發表

【仁川】인천을 중심으로 팔대공장이 진출하며 또한 이에대한 인구가 증가할뿐아니라 일천만원의 대 축항공사로 인한 인부로인하야 인가는 부천군을 침범케하야 현재 구역으로 도저히 대인천을 건설할수업다 하야 인천부에서는 극비밀리에 부근 일대를 부구(府區)에 편입시키고자 비밀리에 내사하든중 근근 확실성을띄여 오는 십월에는 단연코 인천시구확장을 확정발표하리라는대 후보지로는 문학면(文鶴面)일대와 다주면(多朱面) 장의리(長意里)룡정리(龍亭里)일부분이라는데 전긔 후보지가 편입케된다면 인구 십오만이상의 대인천항이 되여 단연 경성의 관문인 대인천의 체면의 손색이 업스리라한다

師恩을欽慕하여 記念碑를建立

【淸風】지난 팔월 십사일제천군 수산면 시장리(堤川郡水山面市場里) 안신석(安信石)씨와 장진한(張鎭漢)씨외 사십명이은사의 긔념석비를 세우고 제사를 거행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들은즉 고 고옥파(故高玉波)선생은 과거 사십여년간을 우리지방교우게를 위하야 만흔공로를 남겻는데 전긔 제씨들은 은사의 은덕을 오래긔념코저 그와가티 긔념서비를 건립한것이라한다

江景體育協會 創立總會開催

【江景】인구 일만오천이나 되는 충남강경읍에서 체육긔관이 하나도 업슴을 심히 유감으로 여인유지들의 발긔로서지난십일 오후 네시반부터 중정 산업회 사르상에서 강경체육협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용구(金容九)씨 사회하에 회원십사 회측제정의원선거 남조선축구대회개최의 건등을 무사결의하엿다는바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代表委員 金容龜 委員 李南柱 金東玉 柳鍾榮 丁相得 尹午炳 顧問 尹吉重 李守鉉 金教哲 鄭鎭國 金容埼 金星圓 高相俊 李榮雨

冷麵의中毒으로 四十餘名呻吟
兼二浦서생긴不祥事

【兼二浦】황해도겸이포명치정(明治町)에 잇는 ○○면옥에서 냉면을먹고 사십여명이 중독된일이 발생되엿다는데 지난십일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신음코잇는환자도 다수라는바 주로 중독원인은 〃소-다〃를 너무 너흔까닭이라하다한다 주로 중독된사람은 오모(吳某)의 생일잔치손님을 비롯하야 강조인부(岡組人夫)기타 일반음내 거주자라는바 소관 겸이포서에서는 엄중경고하는동시 일반가정에서도 하절음식물에 대하야 특히주의를 바란다고한다

平南重大懸案의 陳情結果報告會

【平壤】평남중대현안긔성회(平南重大懸案期成會)에서는 십이일오후 두시삼십분부터 철도호텔에서 희집하여 전번상경진정위원 송정(松井)도엽(稻葉)복도(福島)윤(尹)의 사씨의 보고가 잇섯는데 보고요지는 다음과갓다

普通江改修工事 이문제는 대동강、보통강 합류지점의 개수와서평가리 상류의 개수도 필요하는것을 총독부내무국장도 인정햇고

第二人道橋問題 조선각도시중 평양은 가장전력을 가진만큼 총독도 착념하고 잇는모양이라하며

道廳改築 정무총감의 이야기도 예산을제출하면 평남도청을 제일처음에 하겟다고 햇다하며

平壤驛改築 평양은 만포선과 평원선의 개통을 목전에두엇고 보통강의개수공사도잇서서 장래대평양의 도시계획과 바자를 안마출수업다고 길전(吉田)국장도 이야기햇다

鎭南浦海陸의設備 제이축항완성은 되엿다하나 장래를위하여 크게 고려를 요하는 문제로서 상당한 효과가잇섯다

正直한金直革

【平壤】십이일아츰 첫번으로 사동(寺洞)을 출발한 전차가 우편국압에서머물저승객에 현금이천원이 드러잇는 보재기를 잇고간손님이잇섯다

차장김직혁(金直革)군은 정직하게 그보재기를 본정(本町)파출소에 계출하엿는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은행에 까지 가서야 큰돈을 이저버린것을 발견한 송호리역전(松湖里驛前)안성정미소(安城精米所)주 안한주(安翰柱)는 놀래여 우편국압정류장에 달려갓다

일허버린돈을 아러는 동은 본정파출소에 그대로 보관되여잇섯스므로 넝우도 감격에넘치어 운전수 김군에게 사례금으로 삼십원을 제공코저 햇스나 김군은 종시밧지안코 사양으로 떠나버렷다 한다

平壤의精神病者 男子合十六名

【平壤】평남위생과에서 조사한 금번상반긔 평양부내의 정신병자는 남자 십륙명으로 그중에는 좌혜성(左慧性)일명、우혜성(右慧性)일명、좌행성(左行性)륙명、조광성(躁狂性)일명、라천성(癩天性)일명이라한다

密山在留同胞 靑年會를創設

【密山】북만주 밀산현(三江省密山縣)에 재류하는 동포는 약팔백명이 로령 연해주(沿海州)방면에서 이주하여온사람들로서 밀산조선인청년회를 창설하엿다고한다

義州水害災民 同情金品遝至

【義州】오진변래에 처음당하는 대수재가 일어나는 첫날부터 본보의주지국에서는 소년척후대(少年斥候隊)와 보조를가티하야 재민구제에 가진노력을 다하고 잇는것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주주를만난 녀러전목차지 늙은모 어린자녀들과 끈허진생명을 다시 이여보려는 수천호 의식주의 보장을 일코 엉성한 만여생령들에게 우선응급책으로 하로의량식이라도 보내자! 한가지의 의복이라도 입히자!의 표어아래에서 척후대원을 총동원시켜 구루마를 끌고단니면서 의복과 량식쌀의 의연모집을 지난십일부터 시작하엿는바 그의 연물과 방명은 다음과갓다

衣服各一點 金顯河 高聖化 小米各一升 李明玉 鄭錫相 衣服三點 白鶴國 同二點崔禹洙 同三點 金鶴淑 同四點崔金鋪 同三點金國賓 衣服一點金潤商 同二點崔德浩 小米二升 李商用 衣服三點鄭得成 大米一升朴來信 小米一升崔德化 衣服一點金奎河 同二點金明一 米各一升金昌赫 小米半升金用福 大米一升金榮 小米半升金基鴻 同各二升李順梁 橫山和枝 同半升 朴允河 小米一升崔承奉 同半升崔瑨 同四升李時郁 同半升康智煥 同一升李淑子 小米一升金學奎 同二升申彥故 衣服三點金元基 小米一升金鶴佑 同三點勝子丹 小米五升金鶴祚 同二升獨孤鑽 衣服三點吳行五 同六點洪炳俊 大米一斗申彥模 小米各二升 兪哲升 金志祥 同一斗尹錫明 衣服五點洪俊哲 小米二升 宋李俶 小米二升金乃鉉 同各三升 金道成 任道淳 同五升崔鳳坤、同四升李秉淳 同二升金雲順 同一升李東乙 同二升朴應祖 同一升 高鳳仁 衣服四點 高鳳仁 小米一升崔鳳相 大米三升辛德鎬 小米一斗金亨烈 同一升朱成奎 同一升栗鳳淑 同三升黃城精米所 同一升 朴應甫 大米一升金濟甫 小米一升尹永道 同一升獨孤世 小豆一斗申明淑 小米三升白永坤 大米二升梁永浩 小米一斗洪俊植 同五升金枝吉 衣服一點許吉善 同十點李秀根 고무신三足金河洙 衣服十六點李洞今 同二點李雲成 衣服三點金顧孝 同一點朴致文 同一點金成吉 同 二點尹在貫 同一點金東俊 고무신一足 李元奎 衣服十點趙彥彬 小米一斗金志敏 同一升申德仁 同二升張秉基 大米五合金顯洙 衣服二點咸澤賢 小米五升金鳳鍚 同二升張鳳元 大米二升 朴承大 小米五升金用俊 同五升金鳳瑞 同一升尹仁燮 大米二升崔武善 小米二升李花信 小米五升金益淑 大米二升崔貞淑 小米三升 同二升崔福禎 同五升李貴明 大米二升尹尙勛 小米四升崔尙斗 同朴宗學 同二升金在錄 大米三升 小米五升金用燦 同五升金聖淵 小米二升洪錫善 小米一升姜順浩 小米一升林昌鍚 同五升申張德寶 小米二升張信行 大米一升康利淳 米四升金炳文 同一升奉沼 小米二升李東熙 同三斗金斗衡 同一升李德熙 衣服二十一點金炳洙 衣服一點金奎善 小米五合申仁坤 同一斗尹河和 同六升李龍俊 同二升姜齊榮 同四升李炳鍾 小麥各三升李明鎬 金顯卿 同一斗張龍洙 同三升黃成國 衣服一點李淑子 小米一升吳孝連 大米各一升金光見 李錫龍 小米五升大炫錦 同四升崔根斗 大米五升 崔永秀 衣服九點平壤館的婦一同 小米五升李成根 衣服六點朴昌福 同二點申錫雲 衣服八點李成萬 同各一點河雲起 李尙俊 同三點朴炳奎 同一點趙紀洙 衣服一點金昧山紅 同一點金興奎 同各二點金錫瑞 金炳喆 同一點崔貞淑 衣服一點鄭錫鉉 同各二點白泰賢 田吉興 同二點李秉國 同一點尹昌軒 衣服二點金致萬 同各一點李承元 申煥 張致亨 高顯祺 衣服各二點申義坤 金炳龍 張鵬吳 同三點李昌官 同一點張信行 衣服三點金君禮 同一點李海景 金伯 同二點金贊彥 同三點洪俊哲 同四點洪鍾勳 小米二升張德元 大米一升金雲鎬 小米二斗金炳燁、同三斗 金宗善 玉鳳奎 一升張花淑 小米一升金利鉉 衣服二點方達淑 同四點金大吉 大米二升吉昌官 小米一升金基榮 同二升吳完敏 同一升朴世豊 大米一升 李淑子 小米八升金柄鐘 小米二斗李昌郁 同一斗甲彥洙 衣服十四點金慶淳 同一點金贊淑 同三點衛大米二升朴泰善 小米一升金衣服一點金信德 衣服一點金用四點 吳浩玉 大米五升李德會 六點李守德 同五點白鳳圭 同電球獎 小米一升吳璉鍾 衣服球鉉 衣服一點金鳳鋼 小米四升陳 桐大米一升鄭濟國 大米一升鄭相浩 小米五升張觀元 小米三升無名氏計穀類=小米三石八斗二升 大米五斗七升 小豆二斗 其他三升 ▲衣類=二百三十二點其他七點

刑務所設置와— 法院昇格猛運動
市民連名陳情書提出

【洪城】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은 서산지청폐지이후로 사건이증가되여 건수가 본청보다 적지안허서 지청으로서는 건수가상당히 만한관계상 사무에복잡할뿐만 아니라 서산、당진、보령、례산、청양、홍성(瑞山唐津保寧禮山靑陽洪城)군이나 홍성지청의 관활인마큼 사무의복잡으로는 교통상 불편함이만하 합의제로 승격할것과 또한형사사건여시 증가되여 홍성서에 매년유치죄수가 만여명이고 압송죄수가 백여인이나 됨으로 형무지소가 필요하여 문제를 삼어오든중 지난팔일 법무국장이 래도함을 긔회로 시민일동은 연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엿다는데 홍성사회는 발전상새활긔를 띄우고잇다고 한다

金時計盜難

【麗水】십팔일밤에 려수시내 룡문려관(龍文旅館)에서는 동려관에 투숙하고잇는 려수군 쌍봉면학룡리(麗水郡雙鳳面鶴龍里) 곽봉언(郭鳳彦)씨가 금시게와 금시계줄 시가 약백삼십원 어치를 절도당하엿다는바 이것을 탐지한 경찰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普校新築期成 第二回委員會

【龍州】지난십일 룡주공립보교강당에서 오전십일시부터 제이회、위원회를위원장、주기준(朱基俊)씨의사회하에 개회하엿다는데 회순은 一、郡當局交涉顚末報告의件 一、今後事業進展方針講究의件으로 순조롭게 성황으로진행하엿스나 보교는 도괴에직면하여 아동의게위험을 주고잇스며 또는 회로가미급하다는 것을여설하며 엄일이라도 속히신축하기를 일심전력으로 사업방침에 강구중이라고한다

清州記者團主催 水泳講習會開會
來十八日부터一週間

【清州】청주신문긔자단(新清州聞記者團)에서는 충북체육협회 충주체육협회청주 상공회후원하에 수영에대한 실지지식을 보급식키기위하야 다음과 가티 수영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엿스며 강습이끗나면 계속해서경영대회 (競泳大會)가 잇슬터인데 산간벽지로 연해선이 업는 청주의 첫시험이니만치 인기는 비등하다고한다

期間、自八月十八日부터一週間
場所 清州明岩堤畓
部別 靑年部 午後一時—三時
幼年部 午前十時—正午
(二十一日以後는靑年部로同)
會費 靑年部五十錢 幼年部二十錢

◇訂正 本報第五千一百四號八月十日附朝刊第三面廣告中恩山體育會主催 第六回南鮮蹴球大會는 南鮮庭球大會의 誤植이기玆에訂正함 扶餘支局長

陰城 第三回中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八日
▲場所 陰城運動場
◇主催 陰城蹴球團
◇後援 朝鮮日報陰城支局

延安 延白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八日(雨天順延)
▲場所 延安公普校코—트
◇主催 延安留學生親睦會
◇後援 朝鮮、東亞兩支局

永同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八月十七日부터三日間
▲場所 永同橋下
◇主催 永同市民有志
◇後援 朝鮮外二支局

江景 南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五日午前十時
▲場所 江景商業學校球場
◇主催 江景蹴球俱樂部
◇後援 江景湖南藥局、朝鮮日報江景支局

釜山 桂貞植提琴獨奏會
▲時日 八月二十四日午後八時
▲場所 釜山公會堂
◇主催 基督靑年勉勵會慶南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釜山支局

白川 第一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二十四、五兩日間
▲場所 白川호뎰球場
◇主催 白川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白川支局

翠野 第三回黃海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七、八兩日間
▲場所 茄佐公普校運動場
◇主催 翠野蹴球團
◇後援 朝鮮日報社翠野支局

洪城 第九回湖西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五日午前九時
▲場所 南山公園코—트
◇主催 洪城體育會
◇後援 朝鮮外三支局

光州 講演、音樂、劇의밤
▲時日 二十二日下午八時半
▲場所 第一普校大講堂
◇主催 在外光州留學生會
◇後援 朝鮮日報光州支局

扶餘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卄五日午前九時
▲場所 扶餘公普校코—트
◇主催 扶餘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扶餘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楊州支局 位置 京元線議政府 支局長 洪元
造岳支局 位置 [illegible]城郡造岳市 支局長 朴宗
山淸支局 位置 山淸郡邑內 支局長 愼允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長을更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羅州支局 位置 羅州郡邑內 李會 右任支局長 支局長 吳快 右依願解任
固城支局 位置 固城郡邑內 具鍾 右任支局長 支局長 吳萬 右解任
南海支局 位置 南海邑內 朴瑋 右任支局長 支局長 韓讃 右依願解任

謹告

造岳支局 總務兼記者 李祥 記者 元炳 記者 許錫 右新任
熙川支局 記者 張應 右解任
汶山支局 電話 一二 右開通
廣豊分局 記者 金在 記者 權五 右解任
朱安支局 蘇萊分局長 朴成 右新任
豊川支局 顧問 趙鍾 同 任允 同 朴淳 同 呂寅 同 楊寅 右新任
江陵支局 玉溪駐在記者 金元 右新任
永興支局 記者 李憲 寫眞班記者 黃信 右解任
倭館支局 若木駐在記者 金俊 右新任
寧遠支局 大興小白駐在記者 趙灝 右新任
南海支局 總務兼記者 朴泰 記者 柳友 右新任
楊州支局 總務兼記者 趙定 右新任